

초기불교 수행 심도깊게 설명

각목 스님 '초기불교이해'... "해체해서 보기가 핵심"

"대승불교가 가지라면, 초기불교는 뿌리입니다. 가지를 거부하는 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초기불교는 대승불교를 살피우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통해 자양분을 흠뻑 빨아들이고 때 진정한 대승불교, 올바른 한국불교가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초기경전 연구자이자 번역자인 각목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이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립)에서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초기불교이해>를 출간했다.

스님은 "이번 책은 빨리 니까야에 바탕해 초기불교의 교학체계를 수행체계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 동안 초기불교는 일본과 서양 책을 번역한 것이 고작이었다. 스님은 "이번에 발간된 책은 빨리 니까야에 대한 한국불교의 깊은 이해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책은 빨리 '삼장'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 개론서이다. 특히 빨리 '경장' 가운데서도 니까야를 토대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기불교의 토대는 <니까야>와 <아함>에서 비롯되는데 스님은 <니까야>만을 근거로 저술했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56가지 주제별로 모은 <상윳따 니까야>를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상윳따 니까야>는 5온·12처·18계·22근·4제·12연기와 37보리분법을 잘 조직돼 있으며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 있게 다

룬 경들을 잘 모으고 있다. 또 <정정도론>과 <아비담마 길라잡이>와 주석서의 문헌들을 의지했다.

기존 한국에서 발행된 초기불전의 책들은 단지 초기불교를 쉽게 설명한 입문서일 뿐,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각목 스님은 "<초기불교이해>는 초기불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라며 "초기불교의 입문서를 집해보거나, <니까야>를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 분들이 책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초기불교에 대해 "초기불교의 핵심은 한 마디로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했다.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5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를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를 18계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문제를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온·처·계·연 등으로 설해지는 법들의 무상·고·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본문 81쪽)

책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교학과 수행, 둘로 크게 나눠 설명하고 있다. 교학편에서는 온·처·계·근·제·연의 6가지 주제를 담고 있으며, 수행편에는 37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총 4편으로 나눠져 있는 책은 초기불교의 기본주제, 초기불교의 교학, 초기불교의 수행, 초기불교의 주요 술어로 구성돼 있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읽을 때 딱딱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독하게 되면 초기불교의 교학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각목 스님은 "초기불교의 이해는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구현하는 길"이라며 "부처님의 원음을 통해 중국불교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효 스님이 추구했던 자주불교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목 스님은 2006년에 빨리 니까야의 첫 번째인 <디가 니까야>를 번역했으며, 2009년에는 <상윳따 니까야>를 번역·출간했다. 이어 스님은 <디가 니까야>를 번역한 공로로 2006년 제3회 보현학술상을 수상했으며, <상윳따 니까야>를 번역한 공로로 2010년 제19회 행원문화상을 수상했다.

초기불교이해|각목 지음|초기불전연구원 펴냄|2만3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혼자만의 생각을 극락전 마당에 내려놓고 훑쳐 선사 부도 앞에 섭니다. 겨울 햇살을 등지고 바라보는 부도는 단아하면서도 선명한 세부조각이 화려하기만 합니다. 사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으로 치석된 하대석부터 능숙한 석공의 솜씨가 눈길을 빨아들입니다. 중대석 안상을 장식한 팔부성중의 형상은 위엄이 깃들어 있고 상대석의 연잎 조각들은 지난 여름에 연못에서 따다가 붙여놓은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본문 88쪽)

부도는 흔히 스님들의 무덤이라 말한다. 저자는 그런 부도를 죽음의 공간이 아닌 또 하나의 설법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기에 삶 속에서 죽음을 바로 봐야 하고 죽음 속의 삶을 현명하게 알아차려야 함을 가르치는 곳이 부도밭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법향이 느껴지는 부도밭 28곳을 찾아다니

며 자신의 감성을 녹여 부도밭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28곳에서 만난 역대 고승들의 부도탑과 탑비를 통해 사찰의 역사, 고승들의 행적, 부도탑의 조각수법 등을 저자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단정한 문장으로 풀어낸다.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부도탑이야기가 20년 간 불교전문기자로 활동한 저자의 뛰어난 식견과 감성이 어우러져 읽는 재미가 느껴진다.

현재 저자의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은 분지에서 격주로 연재중이며, 책은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의 내용을 묶은 것이다. 2009년 부도를 연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17회 불교인문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임연태 지음|클리어마인드 펴냄|1만5800원

이은정 기자

데바닷다, 석가모니를 고소하다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꼽히는 석가모니가 소송을 당했다. 석가모니를 고소한 원고는 다름 아닌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그의 사촌이었던 데바닷다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미 해탈해 윤회에서 벗어난 인물로, 영혼만 온다는 역사공화국에는 울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데바닷다는 석가모니를 대신해 석가모니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손자인 사리푸트라를 상대로 재판을 벌인다. 역사 속 라이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판을 벌이는 내용의 '역사공화국 세계사법정'은 원고와 피고, 다양한 증인들의 입을 통해 역사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나가고 있다. 기존의 역사 도서나 교과서가 단순히 설명으로 전개돼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실들을 법정식 구성으로 극적 재미를 더하고 있다.

'역사공화국 세계사법정' 시리즈 중 <왜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역사 데바닷다와 석가모의 제자였던 사리푸트라

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세계사법정에 선 데바닷다는 자신도 석가모니와 마찬가지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했는데 사 람들은 석가모니만을 칭송하고 자신을 악인으로 부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리고 그는 석가모니가 여러 제자들 중 유독 사리푸트라만을 편애했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석가모니의 교단을 떠나 스스로 교단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반면 소송을 당한 사리푸트라는 자신의 동료인 앞사지를 비롯해 아소카 왕 등을 증인으로 불러 석가모니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설파한다. 세 차례에 걸친 치열한 공판을 통해 독자들은 고대 인도와 불교의 역사, 석가모니의 사상을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왜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 박규표·박선영 지음|자음과모음 펴냄|1만 1000원

이은정 기자

선이란 무엇인가? 본질에 대한 고민

현각 스님 '선학의 이해'

선(禪)은 언어나 문자 같은 것은 내세우지 않고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심전심의 행식을 전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선을 애초부터 문자로서 설명하거나 논리적 서술로써 그 실상을 논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선이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교학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선의 경우 선학(禪學)으로 성립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선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류적인 해석의 작업과 더불어 선의 의의와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몸담고 있으면서 선학의 방향제시와 역사와 사상, 수행과 선정 등 종합적인 입문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선학을 강의하고 본격적으로 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저자는 틈틈이 준비해 둔 강의안과

단편적인 이론서 등을 참조해 세 가지 방향으로 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부는 선의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인도에서 발생한 선의 근원과 선의 전개에 대해 개설적으로 피력했다. 2부는 선에 대해 선전과 수행으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선전에서는 선경과 선어록에 대해 개괄적인 조망을 했으며, 수행에서는 수행의 방식에 대한 분류와 함께 선문답과 청류를 통해 선의 본질과 그 특성에 대해 조망했다. 3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주장하고 제기해 온 문제를 중심으로 선사상의 전개에 대해 정리했다.

저자는 "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좌선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진리를 현실화 하는 것"이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묘수(妙修)"라고 말했다.

저자 현각 스님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출가해 동국대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선의 길> <인도의 선·중국의 선> <행복에 이르는 뗏목> <날마다 좋은날> <아난의 입 가십의 마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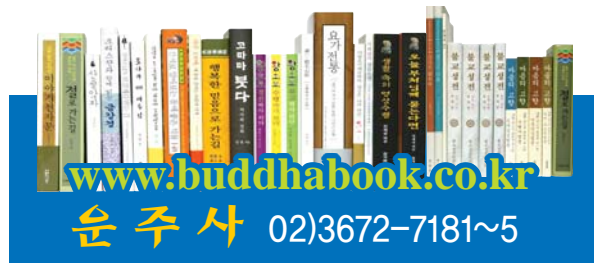
선학의 이해|현각 지음|동국대학교출판부|2만2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초기불교이해	각목	초기불전연구원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젊은 날의 깨달음	해인	클리어마인드
6	기도하는 즐거움	보경	불교시대사
7	붓다 브레인	릭 헨스	불광출판사
8	깨달음으로 가는 즐거움	법산	운주사
9	대의단의 타파, 무병법의 방법	성연	운주사
10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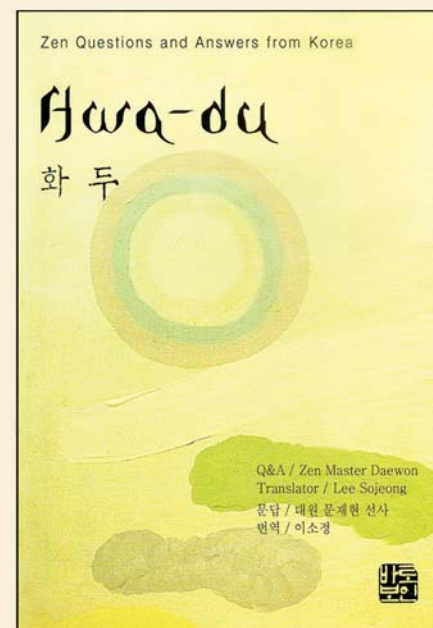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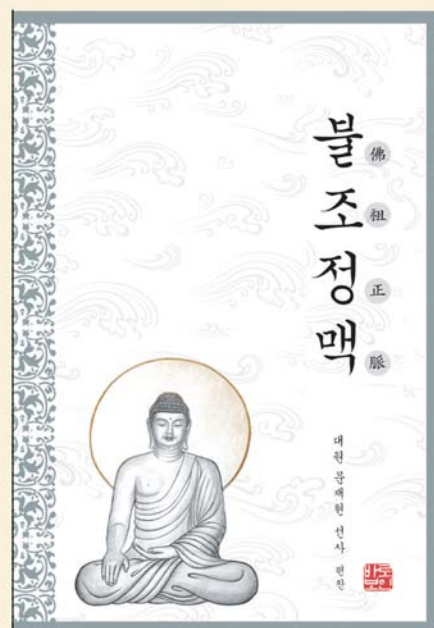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거제도 촬영사 이미지홍불명화

정맥진영과 전법계를 다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불조정맥**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드날리는 **화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계(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신간! 화두/Hwa-du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하여 우리말과 함께 실어서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